

## IMF체제하의 전자산업 비전과 과제

### IMF체제 하의 어려움을 갈수록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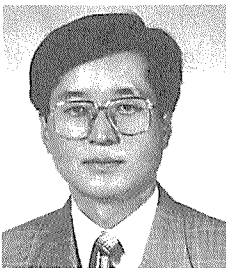
IMF 한파가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자금 지원에 수반된 IMF의 요구사항인 경제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근로자들은 정리해고, 실질적인 임금삭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도 기름값의 대폭 상승에 더하여 각종 생필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이 인상 러시를 이루고 있다. 낮아진 소득에 물가가 오르니 실질소득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 그나마 일자리를 잃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다.

산업계는 더욱 어려운 입장이다.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기업 도산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초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가 크게 위축된 데다 원화절하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여 채산성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원화절하로 그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는 수출도 금융부문에서의 애로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 우리를 움추려 들게하는 것은 언제 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신정부



박 기 흥

산업연구원  
전자정보산업실장

에서는 일년 반 안에 IMF체제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확고한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는 역부족인 느낌이다. 채무연장 및 자금지원과 관련한 협상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취하고 있는 지나친 태도는 민족의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입히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 전자산업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러한 어려움에서 전자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산업의 경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이 국내 과잉설비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편이다. 반면 전자산업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구개발 및 인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행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초고금리와 자본조달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은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내수 부진, 고금리, 자금조달의 어려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그 결과 전자업계에서도 컴퓨터 등 유망분

야의 중소기업부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지속성장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쌓아 놓은 산업기반조차 흔들릴 수 있다.

앞으로의 경제구조 조정이 진행될수록 전자를 비롯한 산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여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경제구조조정은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전자산업의 중장기 안정성장에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산업경쟁력 약화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던 우리나라가 IMF 자금지원이라는 수모를 받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워낙 많이 제시되어 이제 초등학생들조차 나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IMF체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급속한 약화에서 찾을 수 있다. 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경제는 흔히 고비용/저효율

로 요약되는 경쟁력위기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위기감은 계속 증폭되어 국가적인 캠페인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실천에는 소홀하였다.

정부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국내 제도와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경제를 특징지었던 정부주도경제는 불과 30여년 만에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 걸려 달성한 경제성과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경유착, 불안정한 노사관계, 비효율적 기업행태와 금융시스템, 과도한 정부 개입 및 규제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세계화시대에는 오히려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기업의 안이한 경영자세를 들 수 있다. 무한경쟁으로 일컬어지는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기초한 기업 혁신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경영혁신, 기술개발, 합리적인 투자결정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80년대 말 이후 이러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 IMF체제에서의 진정한 탈출에는 경쟁력 강화가 관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경쟁력 약화에 있다면, IMF체제에서의 진정한 탈출을 앞당기기 위한 실마리도 산업경쟁력 회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수출증대 및 수입감축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달성할 수 있고, 외국기업들도 앞다투어 진출함으로써 건설한 외국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국내 법·제도의 개혁 및 경제구조 개편은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만큼 현재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금융부문 개혁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조정 또는 정리해고제의 조기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M&A의 원활화 및 책임경영체의 정착, 재벌 그룹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개혁은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는 이러한 여건을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IMF체제를 극복하여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 정보인프라 등 새로운 경쟁자산 축적을 통해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수출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여기에는 전자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 경쟁력 강화에는 상당한 어려움 예상

그러나 IMF체제 하에서 전자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 및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서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급속한 기업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현 경제위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지난 2년간 생산과 수출의 증가추세가 주춤한 반면, 시장개방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가전제품 등 전통적인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급격히 낮아진 데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급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정보화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LCD, 컴퓨터 주변기기, 무선전화기와 의료용기기 등은 호조를 지속하여 제품간의 구조고도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구조고도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고급인력 등의 경쟁자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발전 및 신제품 출현이 빠르게 진행되는 전자산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투자와 시장선점을 위한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둘째,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되는 등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장개방이 우리의 잠재력을 잠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셋째,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M&A 활성화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이 직접 국내에 진출하거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의해 합병되는 상황도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경영효율화 유도, 고급기술 이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경영권 유지와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 부담을 지움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대기업들의 그룹내 사업 조정과 그룹간의 주력사업 재편, 그리고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한 해외사업 재검토 등도 전자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희생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가뜰이나 취약한 전자부문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기반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 등 후발국들과의 경쟁에서조차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전

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산업간 구조조정과 현재의 주력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산업내 구조조정에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전자산업은 정보화사회의 중심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서의 성장률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미래 유망산업이다.

또한 정보화의 확산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새로운 경쟁우위요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자산업의 발전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일부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구조고도화에 필수적인 기본설계, 응용설계, 소재기술, 시스템 구성 등 첨단기술력과 고급인력에서는 선진국에 상당히 뒤진 상태이다. 이러한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통신장비, 방송장비, 의료기기 등 첨단 부문과 비메모리반도체 등의 핵심부품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가 필요하며,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지원

역시 늘어나야 한다. 대기업들의 사업재편 과정에서도 전자부문의 중요성과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서의 첨단기술 개발과 상품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보 교류, 기술지원, 공동개발 등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출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원화절하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원활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투자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재점검하여 중장기적인 수출기반 확충과 대일 수출 증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IMF체제 하의 경제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개방과 경쟁의 새로운 질서와 규범이 정립되는 과정이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다.